

박동춘의 茶 이야기

⑦ 차를 즐기기 위한 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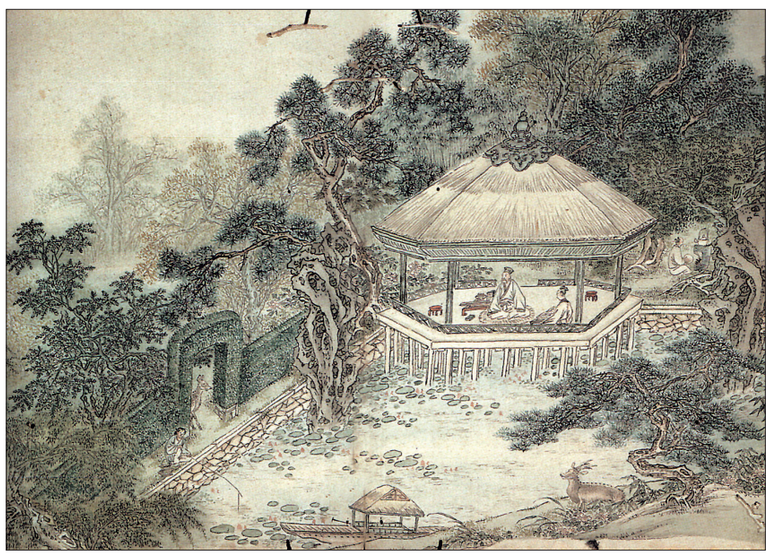
茶品 감별 안목, 제다 이해서 나온다

차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지름길은 차를 만드는 원리를 아는 것이다. 다사(茶事)의 핵심은 좋은 차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있고, 이에 따라 차의 격조가 다르게 구현되기 때문이다. 물론 차의 이치에 두루 밝은 다인(茶人)이라면 좋은 차를 감별할 능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차의 진수를 드러낼 조건이 무엇에 있는지를 간파하고 있다.

그러므로 차를 잘 즐기기 위한 첫째 조건은 차의 품질을 잘 감별할 안목을 갖추는 것인데, 이는 제다의 오묘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결국 다사는 차를 즐기는 전반 사항으로, 차의 진수는 제다를 통해 드러나므로, 제다의 원리 이해는 다사의 핵심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는 셈이다.

제다의 시작은 차를 따는 시점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이고, 그 요체는 제다인의 판단 능력과 경험에서 나온다. 그런데 좋은 찻잎을 얻었다고 하여 좋은 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를 덖는 불의 강도를 균등하게 조절할 수 있는 순발력에 의해 차품의 80%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외적인 조건 이외에도 차를 만드는 사람의 순선한 마음가짐이 명차로써의 수준을 드러내는 요소라 할 수 있으니 이는 제다인의 마음이 차에 오롯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차를 만드는 사람은 모름지기 도가에서 단약을 만드는 것처럼 불의 강약을 조리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 바로 불과 찻잎 사이를 넘나드는 불의 기세를 어떻게 조절해야 찻잎을 알맞게 익힐 것인가, 그 적정한 순간을 판단할 순발력과 통찰이 절대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초의 선사는 "삼매(三昧)의 솜씨, 기이한 향이 피어나네(三昧手中上奇芬)"라고 말한 것이다. 바로 차에서 기이한 향이 핀다는 것은 화후가 적절하게 조절되었다는 뜻이며, 삼매의 솜씨란 차를 만들 때 제다인의 마음 상태와 몰입 정도를 언급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인문의 '연정수업'. 옛날 선비들은 제자를 가르칠 때에도 차를 끓여 마셨으니 이는 여름날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茶事 핵심, 좋은 차 감별에 있어
제다, 차 따는 시점 파악서 시작
차 덖는 불의 강도 조절도 필수

그런데 마음의 번뇌와 막힌 몸의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는 선품(仙品)의 차란 어떤 품격을 갖춘 차를 말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명대 주권(朱權)의 〈다보(茶譜)〉 '품다(品茶)'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차에 여러 가지 향을 섞어 (차)자연적인 본성이 사라지면 차의 진미를 빼앗는다. 대개 (차)맛은 맑고 달며 향기로워 오랫동안 (입안에)단 맛이 감돌고 정신을 상쾌하게 할 수 있어야 상품의 차이다.(雜以諸香 失其自然之性 奪其真味 大抵味清甘而香 久甘回味 能爽神者為上)

윗글은 명대 문인의 품다(品茶) 관점을 드러낸 객관적인 관점이다. 문예의 감수성을 지닌 것으로, 이는 당시 차 문화의 흐름을 짐작하게 한다. 특히 문자향(文字香)과 감향(甘香)과 청온(淸溫)한 품색(品色)을 즐겼던 명대 문인들이 희구(希求)했던 차의 가치요, 안목의 반영인 셈이다. 그가 말한 차의 격조는 첫째 차의 천연적인 본성을 상실하지 않아야 하며, 둘째 차는 맑고 감미로워야 한다. 이는 차가 지닌 순수한 참맛의 조건을 밝힌 것이며, 입과 코로 느낄 수 있는 표면적인 차의 세계는 향기로움이요, 쓰거나 떫은맛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감미(甘味)가 오래도록 입안에서 회감(回甘)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선차(仙茶)의 특징적 요소는 정신을 상쾌하게 하며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차가 사람에게 주는 이로움 중에 단연 첫째로 거론될 덕목이다. 그렇다면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바로 번뇌·분노·우울함·공포·조급함·담담한 심리 상태 등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상쾌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차의 어떤 향과 맛이, 그리고 기운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일까. 잘 만들어진 차에는 난향(蘭香)이 난다. 이는 화한 허브 향과 비슷한 향이다. 화한 난향이 드러난 차를 마시면 가슴이 시원해지며 경쾌한 기세가 온몸을 감싸는 듯하고, 차가 목젖을 타고 내려가면서 식도와 위까지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차에서나 난향이 나는 것은 아니다. 난향을 지닌 차는 차나무의 생육 조건이 좋아야 한다. 오염이 되지 않은 산하 계곡에서 자란 차로, 차 싹(一槍)이나 일창일기(一槍一旗), 즉 작설처럼 생긴 차 싹에서 잔존하는 향이다. 만약 차 싹이 자라 크게 퍼져 버리면 찻잎의 난향이 엷어져 희미해지며, 쓰고 떫은맛이 강해진다. 그러니 제다와 채다 시점이 적절하면 난향이 드러나는 차를 만들 수 있으니 이런 차는 명차 중의 명차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명대 주권(朱權)이 찬술한 〈다보(茶譜)〉 '품다(品茶)'에는 "차의 본성은 냉하므로 병이 든 사람이 아니면 (차를) 많이 마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茶性涼, 不疾者不宜多飮)"고 하였다. 이는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다.

원래 차는 음(陰)하고 찬(冷) 성질을 지닌 초목인데 이런 기질 때문에 맑은 것이다. 그러므로 옛사람들은 차의 냉한 기질을 순화시켜 차의 좋은 점을 취하고자 했다. 바로 뜨거운 증기나 불에 찻잎을 익혀 차의 독성을 중화시킨 것이 그것이다. 아울러 차를 끓일 때 뜨거운 물로 우리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아무튼 차가 답답함과 막힌 것을 풀어 주는 공(功)이 있다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차의 폐해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차에는 좋고 나쁨이 양립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차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명대 시인 악순(樂純)는 차의 폐단을 그의 〈설암청사(雪庵淸史)〉에서 "옛사람이 하는 말에 (차는) 응어리와 막힌 것을 풀어준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이로움으로 잠깐 좋은 것이다. (차가 사람의) 기운을 수척하게 하고 정기를 소모하여 끝내 몸에 해롭다(昔人有言釋滯消壅 一日之利 暫佳 瘠氣耗精 終身之害)"고 하였다. 이는 차를 즐기는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주의사항인 셈이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나란다축제 불교고리경시대회 완전정복 ⑭

1. 싯다르타 태자가 출가한 목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② 세속의 속박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③ 생로병사가 괴로워 현재의 삶에서 도피하기 위해
④ 나라의 왕이 되어 한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리기 위해
⑤ 생로병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해설 : 싯다르타 태자는 성의 네 문에서 생로병사와 이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출가수행자를 보고(사문유관)하여 출가하였다.

2. 수행자 '고타마'는 우유죽으로 기운을 회복한 후 최상의 깨달음을 성취할 장소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반석 위에 '숏티야'가 공양한 풀을 깔고 동쪽을 향해 앉아서 깊은 선정에 들게 된다. 부처님의 깨달음의 인연을 지은 이 풀을 무엇이라고 하나?
① 길상초(吉祥草)
② 무우수(無優樹)
③ 도리천(忉利天)
④ 사라수(紗羅樹)
⑤ 백상초(白象草)

해설 : 길상의 의미는 상서로운 조짐으로 태자는 이 풀 위에서 깨달음(상서로운 일)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3. 싯다르타의 출가 동기(動機)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현실에 대한 반항적인 충동으로
② 호화로운 일상생활이 따분하기만 해서
③ 단순한 허무에 빠져 우발적인 감정으로
④ 왕위를 물려받아야만 하는 중압감 때문에
⑤ 누구나 부딪치는 인생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해설 : 불교는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다고 믿음으로, 모든 사람 누구나 부딪치는 인생의 고뇌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해결이 가능함을 자신의 삶(태자로 태어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여 부처님을 이룸)으로 보여주셨다.

4. 수행자 고타마는 수자타로부터 우유죽을 공양받고 기력을 회복한 후 보리수 아래서 앉아 결심하면서 말씀한 내용은?
① 깊은 선정에 들어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리라.
② 깨달음을 이루어 세상에 도덕정치를 구현하리라.
③ 빨리 깨달음을 이루어 인도사회에서 탁월한 종교지도자가 되리라.
④ 도[道, 깨달음]를 이루지 못하면 결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⑤ 깨달음을 이루어 다른 종교지도자와 토론하고 그들을 제자로 받아들이리라.

해설 : 수행자 고타마는 6년의 수행 끝에 고행주의와 수정주의의 양극단을 여의고 중도의 수행을 시작하였을 때, 깨달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5.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수행자 고타마는 마왕의 항복을 받고 지신에게 완벽한 깨달음을 증명받았다.
② 모든 번민과 고통은 사라지고 청정한 삶이 완성되어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
③ 깨달음을 완성한 보살에게는 더 이상의 번뇌는 남아있지 않는 누진통(漏盡通)을 얻었다.
④ 깊은 선정에 들자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게 되는 고요한 삼매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⑤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천안통을 얻은 수행자 고타마는 중생들의 한없는 고통을 살펴보다 동쪽으로 새벽 별이 떠오를 때 다시 일반인으로 돌아갔다.

해설 : 부처님께서는 새벽 별(명성)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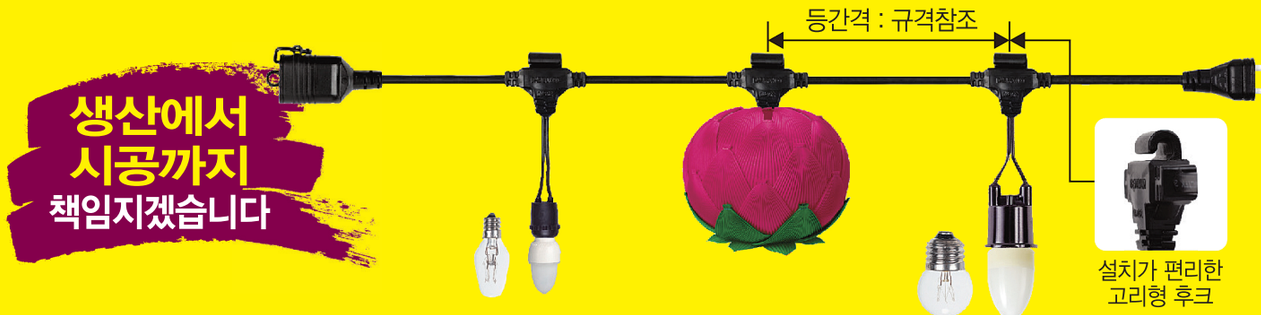
6. 6년 간의 고행 끝에 고행이 열반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고행을 버린 수행자 고타마에게 우유죽을 보시한 소녀는 누구인가?
① 마라 ② 땅하 ③ 수자따 ④ 아라띠 ⑤ 야소다라

해설 : 수행자 고타마에게 우유죽을 보시한 소녀의 이름은 수자따이다. 이 공양을 받으시고 수행자 고타마는 깨달음을 이루신다. 반대로 열반 때 마지막 공양을 올린 것은 대장장이 춘다이고 이 공양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열반에 드신다.

정답 : 1.⑤ 2.① 3.⑤ 4.④ 5.⑤ 6.③

제공 : (재)은정불교문화진흥원 / 감수 : 서정원 박사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 25㎝, 28㎝, 30㎝, 40㎝, 50㎝,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